

유스 씨어터를 통한 담론의 해체와 재구성

한 귀 은*

차 례

- | | |
|------------------------------|--------------------------------|
| I. 문제 제기 | 2. 상호 메타텍스트의 다중 대화 |
| II. 텍스트의 유스 씨어터화의 이론적
타당성 | 3. 하이퍼미디어를 통한 정보
검색과 텍스트 연구 |
| 1. 담론의 해체와 재구성 | 4. 구안(devising)과 즉흥극 |
| 2. 유스 씨어터의 방법 | 5. 공연 후 활동 |
| III. 유스 씨어터의 실제 | 6. 원텍스트로의 피드백 |
| 1. 텍스트 선택과 직관적 메타텍스트
생산 | IV. 결 론 |

I. 문제 제기

현실은 다양한 담론들(discourses)로 가득차 있다. 그 담론들은 지배와 종속의 역동적 위계 질서 속에서 상호 담론(inter-discourse)의 장(場)을 형성하고 있다. 복잡한 코드화(encoding)로 형성된 텍스트들, 기의를 찾지 못하는 기표들의 부유 속에 인간은 내던져져 있는 것이다. 특히 기호의 자의성으로 인해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정보의 조작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담론¹⁾을 형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현 체제에서 정보의 수용과 재구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된 장소는 학교²⁾이다. 학교는 학습자들이 담론들의 혼돈 속에서 주체로서 탈담론(post-discourse)³⁾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 방법으로 유스 씨어터(Youth Theatre)를 들 수 있다. 유스 씨어터는 학생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구안(devising)하여 연습하고 이를 공연하는 아마추어 연극⁴⁾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동일시', '소원화' 등의 인식의 장을 형성하며, 텍스트를 재구성하고 담론을 해체하는 활동을 통해 주체로서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스 씨어터의 타당성을 추론하고 이를 수업에 변용적으로 보편화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기 위해, 제 2장에서는 텍스트를 유스 씨어터화하여 재구성하는 활동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입증하고, 제 3장에서는 실제로 텍스트를 유스 씨어터화 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텍스트와 담론은 모두 기호와 코드 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담론은 특히 발화하는 주체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텍스트가 세계 속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성격을 띠는 언표들의 집합이라면, 담론은 발화주체의 이데올로기가 깊이 개입되어 있는 언표들의 코드화인 것이다.

2) 현재는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지만, 점차 탈학교화되고 정보 은행(자료 은행)이 보편화되면서, 정보 전달 교수가 아니라 정보의 조작적 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수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로써 정보는 단순히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산되며, 기존의 분할되었던 학문의 영역은 간학문(inter-discipline)적으로 재편성될 것이다.

(Lyotard, J.F., 이현복 옮김, 『포스트 모던적 조건』, 서광사, 1992. 116~117쪽 참조.)

3) 탈담론은 담론에 대한 초월적 담론이다. 학습자들은 다양한 담론들의 상호적 층위에서 자신의 에고(ego)와 담론들의 접촉을 경험하고 이를 수용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를 탈담론이라 칭할 수 있다. 탈담론은 재구성 과정에 놓인 담론이며 잠재적 의미망을 가질 뿐 영구히 경직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의의가 있는 개념이다.

4) 유스 씨어터는 '청소년 연극'으로 번역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전문극단이 청소년 관객을 위해 공연하는 감상용 연극도 청소년 연극으로 부르고 있어 개념에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대로 'Youth-Theatre'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박은희, 「학교 연극 교육, 개방과 융화의 장으로」, 교육월보, 1994. 4. 60쪽.)

II. 텍스트의 유스 씨어터화의 이론적 타당성

1. 담론의 해체와 재구성

주도담론은 권력과 연계되어 한 시대 삶의 양태를 지배적으로 이끌어 간다. 그 담론이 거대 권력을 통해 교조화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로 변환⁵⁾하게 된다. 주도담론이 그 공간을 확장시키면서 사회를 장악하게 될 때 담론의 제국주의가 형성되며, 다양한 주변 담론들은 점점 더 잠식되며 억압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도담론은 어디에서나 발견된다. 정치, 경제, 학문적 담론에서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문화의 장 속에서, 나아가 가장 객관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언론 담론의 장에서도 주도담론은 게릴라 전술로 타자들의 담론들을 위협하고 있다. 타자들은 주도담론을 다양한 코드로 접하고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다. 권력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구조에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으로 분산되는 힘의 그물망 속에 놓여 있다. 권력은 거시 구조가 아니라 미시 구조⁶⁾인 것이다. 이러한 마이크로(micro)권력은 사회 속에 다양하게 코드화되면서 분산되어 있다. 권력이 생산한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순간, 사회는 일원화되며 결국 정보 민주주의는 모래성이 되어 버린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육과정을 몇 개의 과목으로 분할시켜 각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옹호하면서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이다. 제 6차 교육과정부터는 통합교과과정의 성격을 띠게 되었지만, 이것도 본격적인 경계 허물기라기보다는 임기응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교과는 애초에 분리된 것이었다고 말하기 곤란하다. 교과의 내용과 자료는 모두 텍스트이다. 단지 텍스트 충위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있어 어떠한 약호가 사용되는가에 따라 교과마다 특수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교과 중심의 정전(canon) 지향 교육에서 모든 텍스트를 위시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이 텍스트를 대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계의 역할이라 생각된다.

5) 이정우, 『가로지르기』, 민음사, 1997. 94쪽.

6) 이광래, 『미셀 푸코-狂氣의 역사에서 性的 역사까지』, 민음사, 1996. 237쪽.

현 교육과정은 정전과 그것에 대한 주해만 만들어 놓고 있을 뿐이다. 텍스트는 보물이며 학교에서는 더욱 정전을 신봉시하며 그 주해의 과정을 정당화하며 재생산⁷⁾한다. 특히 비문학텍스트는 실제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단지 읽혀질 뿐 해석되어지지 않고 비판을 비껴 가게 만든다.

텍스트는 폐쇄적인 틀을 초월하는 혼적으로서 부정체성(non-identity), 반현존(부재, non-presence)의 성격을 갖는 물질적인 것이다. 전통적인 텍스트 읽기는 차이를 거부하고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는 로고스 중심의 성격을 지녔으나, 실제 읽기는 텍스트에 대한 끝이 없고 폭력적인 놀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는 텍스트의 규범과 영원한 투쟁을 해야만 한다. 독자는 벡터(vector)로서 텍스트의 규범이나 의미로부터 방향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읽기는 코드의 도약대(juggling)이며 하나의 誤讀은 또 다른 오독을 초래⁸⁾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기호와 수사 속에 묻혀 있다. 특히 시청각 매체에 의해 전달된 기호와 텍스트들에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들의 세계를 분별하고, 자신의利害를 결정하며, 모든 유형의 매체 속에 있는 텍스트의 작용 양상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과 지식⁹⁾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

7) Scholes, Robert, 김상욱 옮김, 「문학이론과 문학교육-텍스트의 위력」, 夏雨, 1995. 19~20쪽 참조.

8) 이탈리아 칼비노(Italo Calvino)의 포스트모던 소설인 『겨울의 밤 여행중에(If on Winter's Night a Traveler)』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어너리오(Imerio)'는 反讀者(non-reader)이다. 그는 읽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이 말은 그가 문맹자(illiterate)라는 말이 아니다. 그는 읽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너리오의 문자 언어를 보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글자를 보는 페이지 위의 이상하고 의미 없는 잉크 자국을 본다. 어너리오의 읽기를 초월하여, 텍스트를 관념의 매체로서 간주하지 않고 단지 고체의 불명료한 객체로 본다. 그에게 있어 독서의 비밀은 문자 언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되, 더욱 강렬하게 그 언어들 자체가 사라질 때까지 주시하는 것이다.

반독자들에게 문자 언어는 결국 사라지고(disappear) 그것들은 문자가 아닌 어떤 형태로 산중(disintergrate)된다. 단어들은 그 잠재적인 의미화를 잃어 버리고 기호론적 코라(semiotic chora) 상태로 돌아간다.

(Aichele, George., *Reading beyond Meaning*.)

"<http://Jefferson.village.virginia.edu/pmc/text-only/Issue..../aichele.59.>"

9) Scholes, Robert., 앞의 책, 22쪽.

들은 텍스트와 담론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자신들이 발화 주체로서 탈담론을 형성하고 이러한 과정을 나선형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단지 담론을 소비하는 타자가 아니라 담론의 세계 속에 한 발화 주체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해체시키면서 재구성해 나가야 할 주도담론의 특성 중 하나는 이항 대립의 서열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다. 주도담론(지배담론)과 주변담론이라는 설정 자체가 중심과 주변이라는 폭력적인 이항대립 체계에 입각한 것이다. 진정한 담론의 민주주의는 모든 담론들을 수용하는 다성적인 담론의 장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선/악, 미/추 등의 흑백 논리의 오류에서 벗어나는 것도 포함된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을 보는 관점의 차원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 사건[text]의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메타텍스트(meta-text)가 생산될 수 있다. 그 다양한 메타텍스트들 중 다른 것을 억누르고 하나의 초점화로 주도담론을 유포시키고 이를 타자들에게 폭력적으로 수용하게 만들 때, 진정한 정보 사회와 담론의 민주주의는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점유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단선적으로 주입시킨다는 것은 학생들이 정보에 대해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러한 일방향의 수업을 통해서서는 자기조절적인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학생들은 혼돈(chaos)의 상태이며, 자신의 역동적인 스키마(schema)를 통해 정보를 전이(translation)시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존재이다. 자아(ego)는 선택적인 의식의 장을 형성하고 반성적 조작 능력이 있는 존재¹⁰⁾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텍스트 읽기도 자유로운 놀이(play)¹¹⁾로 행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동성을 무시하고 정보를 교사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다.

정보의 민주주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곳은 가상공간(cyber-space)이다. 학생들은 가상공간에 다층적으로 열려 있는 여러 정보들을 스스로 검색하

10) Kierans, Kenneth., *Beyond Deconstruction*. "http://www.mun.ca/animus/199/voiz/kierans1.htm."

11) Morningstar, Chip, *How to Deconstruct Almost Anything*. "http://www.communities.com/paper/deconstr.html."

고 재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을 키워나간다. 온라인(on-line) 상태에서 비선형적 유통 상태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을 하이퍼미디어(hyper-media) 수업¹²⁾이라고 한다. 하이퍼미디어 수업은 하이퍼텍스트의 원리와 멀티미디어 원리를 통합한 것으로, 교사는 컴퓨터 사용 능력과 필요한 정보의 위치(site)를 알아야 하고, 이를 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¹³⁾ 한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에서도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정보를 찾고, 재조직하는 활동을 중시하고 있으며,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컨텍스트(context)를 활용¹⁴⁾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이런 정보의 개방을 토대로 학습자들이 정보나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스 씨어터이다. 유스 씨어터는 정보 탐색 과정을 수반하며, 이러한 다양한 정보와 텍스트, 담론을 토대로 학습자가 주체로서 새로운 담론을 재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시켜 준다. 정보 검색이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이 개별적 학습자가 다중적인 담론들을 만나는 일대다(一對多)의 장¹⁵⁾이라면, 유스 씨어터를 통한 대화와 연행의 장은 다대다(多

12) 이채연, 「하이퍼미디어를 이용한 국어과 수업 전략」, 어문학 제 60집, 1997. 2. 495쪽.

13) 위의 글, 496쪽.

14) 교육부 고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I』에서는 ‘읽기’ 활동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놓고 있다.

- (1) 읽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을 안다.
- (2) 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글을 읽는다.
- (3) 정보를 재조직하며 글을 읽는다.
- (4) 표현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며 글을 읽는다.
- (5) 읽은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 (6) 읽기 활동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읽는 태도를 지닌다.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I』 34~35쪽 참조)
 또,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심리적, 문화적 요구에 부합되는 관련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학 활동의 폭을 넓히고 이해의 심도를 깊게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I』 83쪽 참조)

15) 가상공간에서 정보 검색을 단순히 ‘一對多’의 장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곤란하다. 검색자는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텍스트로 제시하여 올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상공간은 분명 쌍방향의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지만,

對多)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 속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메타텍스트를 다른 메타텍스트들과 관련지으면서 인식의 내파(implosion)¹⁶⁾를 형성하게 된다.

2. 유스 씨어터의 방법

유스 씨어터와 같이 드라마 기법을 교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연극(연기)를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연극(theatre)은 생산품(product)에 초점을 둔 관객을 위한 것이지만, 교실에서 행해지는 연극인 창의적 극(creative dramatics)은 비공식적인 것으로 관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위한 극적 상호 작용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예술적 형식으로서라기보다는 수업 매체로서 더 의의가 있다. 드라마는 학생들이 지식을 새로운 인식 체계로 재구성하는 것을 돕는다. 극적 행동은 주제와 자신과 사회의 관계를 탐색하는 방법이 되며, 개인적 의미나 보편적, 추상적,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 개념들을 구체적 경험으로 전이¹⁷⁾시켜 준다.

드라마를 통한 수업에서 교사는 지식의 근원을 제공하는 권위자라기보다는 촉진자이며, 미리 구안한 변용적 수업 네트워크(translating network)의 영역으로 학생들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교육은 하나의 목소리를 수용하기 위해 애쓰는 작업이 아니라, 다중적인 목소리의 폭발을 위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유스 씨어터는 티-아이-이(T.I.E., Theatre In Education)의 방법으로 행해진다. 티-아이-이와 유스 씨어터는 연행 주체에서 변별된다. 전자에서는 연행

학생들이 검색을 하면서 의견을 개진시켜 나가는 것이 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 현실 공간에서 형성되는 대화의 장에 비해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유스 씨어터는 학생들의 직접 대면과 직접 대화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체이므로 이러한 가상공간 속에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16) '내파'란 상이한 것, 동등하지 않은 것들이 돌발적으로 동일한 차원으로 합물되는 것을 의미한다(Easthope, Antony, 임상훈 옮김,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현대미술사, 1996. 278쪽.).

학습자들은 이러한 내파 과정을 통해 자신의 메타 텍스트를 계속적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17) Robbin, Bruce., *Creative Dramatics in the Language Arts Classroom*.
 "http://www.ed.gov/databases/ERIC_Digests/ed297402.html."

주체가 성인 배우(actor teacher)라면, 후자에서는 학생들이 주체가 된다. 티-아이-이는 주체로서의 성인 배우가 학생들을 연극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단순히 학생들을 관객 주체로 남겨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한다. 유스 씨어터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극을 구성하고 연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티-아이-이와 유스 씨어터는 일반적으로는 ‘준비(pre-work), 공연(presentation/participation), 공연 후 단계(post-work/follow up)¹⁸⁾’로 구성된다.

기존의 유스 씨어터의 준비 단계는 ‘주제¹⁹⁾ 선택, 선택된 주제에 대한 학습, 주제에 대한 개념 정리, 핵심 의문문 만들기(초점 설정), 대본의 내용·형식·구조 결정, 연습’으로 조직화되었고, 공연 단계를 거쳐, 공연 후 단계로서는 극 중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관객들이 극을 재구성할 수 있는 적극적 활동 과정을 포함²⁰⁾시켰다.

이런 유스 씨어터의 유동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담론의 해체와 재구성의 역동성을 한 차원 더 부여한 변용적 네트워크(translating network)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변용적 네트워크로서 유스 씨어터는 텍스트의 역동성과 학습 주체들의 해체를 반영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유스 씨어터와 변용적 네트워크로서 유스 씨어터 차이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용적 유스 씨어터는 ‘주제’(topic)를 고정시키지 않는다.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토픽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텍스트는 언제나 컨텍스트를 수반할 뿐만 아니라, 그 텍스트를 대하는 주체들의 의식도 메타텍스트 생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토픽은 다중적일 수밖에 없다.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들의 첫 반응은 직관적으로 텍스트를 메타텍스트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직관적 전환(eidetic reduction)은 현상에 대해 노에시스(noesis)를 발휘하여 선형적 전환(transcendental reduction)을 거쳐 노에마(noema)를 형성하는 과정²¹⁾과 함께 이루어진다.

18) 박은희, 앞의 글, 61쪽.

19) 여기서, ‘주제’는 테마(theme)라기 보다는 토픽(topic)의 성격이 강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토픽이 점점 하나의 초점으로 향하면서 핵심 의문문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20) 박은희, 앞의 글, 62쪽.

21) 노에마(noema)는 후설(Husserl)이 의식의 주류 속에서 형성되는 객체의 의미를

토픽에 대한 학습은 학습자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는, 정보의 민주적 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태에서의 하이퍼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이 효율적이다. 학습자들은 텍스트 연구를 위해 여러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재구성함으로써 메타텍스트를 형성할 수 있다. 여러 메타텍스트를 공유하는 활동 속에서 상호 메타텍스트(inter-meta-text)가 구성되고, 이로써 텍스트 연구는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용적 유스 씨어터에서는 '학습'(learning)이라는 용어를 '연구'(study)로 대체한다.

둘째, 변용적 유스 씨어터에서는 핵심 의문문을 만들지 않는다. 핵심 의문문은 학습자들의 다중적 목소리를 억압하는 기제로 오용될 수 있다. 학습자들의 다중적 메타텍스트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이를 상호주관적인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상호주관적인 메타텍스트는 잠재적인 결정체일 뿐, 여전히 미완결의 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미완결의 극을 구성하기 위해 옴니버스 스타일(omnibus style)을 활용하거나, 불연속적인 장면·다양한 오프시스(opsis)와 멜로포이아(melopoia)를 삽입함으로써 다양성과 복잡성, 복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옴니버스 스타일은 한 텍스트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이다. 학습자들은 조를 나누어서 각각의 메타텍스트를 연행하고, 이후에 각각에 대해 서로 비평함으로써 텍스트의 다중성을 직접 경험하면서 해체적인 탈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

불연속적인 장면은 장면 간의 유기적 관계를 고집하지 않고 각 장면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구성된다. 극중 공간을 다양화하거나, 극중극·막간극·코러스 등의 기법을 통해 다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인형극을 삽입하거나 비디오 자료 화면을 활용할 수도 있다.

지시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인식 주체는 두 가지 전환(reduction)을 수행하는데, 그 첫 번째가 직관적인 전환(eidetic reduction)이다. 직관적인 전환은 의계를 지향하여 그 다양한 객체들로부터 보편성을 획득하고 이를 카테고리화한다. 두 번째 전환은 선형적인 전환(transcendental reduction)인데, 이를 통해 인간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객체에 대해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상적인 객체로의 의식 작용을 노에시스(noesis)라고 하고, 이를 통해 인식 주체인 초월적 에고(transcendental ego)는 그의 의식 속에서 이상적이고 순수한 객체를 형성할 수 있다.

(Choi, won, *A Note for Derrida* "http://www.erois.com/spinoc/eaenida.html,")

인형은 학습자들이 두려움 없이 연행할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매체이다. 인형에 자아를 투사시킴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이 약화되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자아 정체성(self identity)이 발견될 수 있다. 각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인형들이 유일한 목소리를 갖도록 할 수도 있고, 특별한 캐릭터를 부여하여 이용²²⁾할 수도 있다.

오프시스(opsis, spectacle)는 무대 위의 장면과 광경 혹은 그것을 위한 장치와 배우의 분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객들로부터의 일정한 영향, 공연 효과까지 포함하는 개념²³⁾으로 극의 기호로 작용한다. 기호로서 오프시스는 극 전체에 대해 은유로 기능하는데, 이 은유를 해체하는 아이러니를 통해 극의 이중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학습자들은 오프시스를 장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지만, 이는 경제성과도 직결되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멜로포이아(melopoia, melody)에 의해서도 극의 다중성을 확보하고 넓은 잠재적 의미망을 구축할 수 있다. 멜로포이아는 울동과 화성을 가진 코러스²⁴⁾로서 학생들의 문화적 감각에 더 가까운 대중 가요나 팝송, 재즈 뿐만 아니라 랩(rap)도 활용될 수 있다. 노래는 리듬과 상징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고, 랩은 의사 전달을 더욱 리드미컬하게 할 수 있다²⁵⁾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셋째, 다중성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즉흥극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흥극은 장면 간의 상호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스키마와 직관적인 인식이 교차되면서 이루어진다. 즉흥극 이전에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이후 간단한 스토리 라인(story line)과 장면 구성(구안, devising)만으로 연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스토리 라인은 학습자들의 집단적인 스토리 텔링(story telling)으로 구성한다. 스토리 텔링은 모든 학습자들이 한 두 문장씩의 발화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그 과정 속에서 이야기는 보충(Supplement)되기도 하

22) Martin, Geraldine, *The Use of Puppetry to increase Self - worth Through the Windows of poetry*, "http://www.cis.yale.edu/ynhti/curriculum/guides/1991/4/91.04.08.x.html."

23) 민병욱, 『연극읽기』 (제 2판), 삼영사, 1998. 19쪽.

24) 위의 책, 19쪽.

25) *The Poetry Page*. "http://www.sympatico.ca/ray.saitz/poetry.htm#kyle"

고 단절되기도 하면서 학습자들의 의식이 반영된다. 모든 참여자들의 발화가 인정되기 때문에 스토리 라인은 선조성을 띠지 않고 다선적이고 다층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변용적 유스 씨어터는 관극 행위를 위한 공연을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공연 자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탈담론 형성을 목표로 하므로, 즉흥극 이후 단계(post-work)도 간과될 수 없는 과정이다. 장면과 극에 대한 평, 역할 바꾸기(changing role play), 핫 씨팅(hot sitting)이나 스크립(script) 제작, 원텍스트로(proto-text)의 피드백(feed back) 등을 활용하여 텍스트 연구와의 상호 관련성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역할 바꾸기는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다중적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불러올 수 있는 매체이다. 한 학습자가 특정한 역할만 하지 않고, 다른 입장의 역할을 연행해 보았을 경우, 그의 입장과 상황을 체화하게 되므로 초점화에 따른 텍스트의 해체 양상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핫 씨팅은 연행자가 극이 끝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 인물로 창의적 가정(creative if)을 하고 관객들의 질의에 답하는 공연 후 활동²⁶⁾이다. 이 과정을 통해 연행자는 극에서 표현하지 못한 인물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텍스트의 컨텍스트적 상황을 다시 고려해 봄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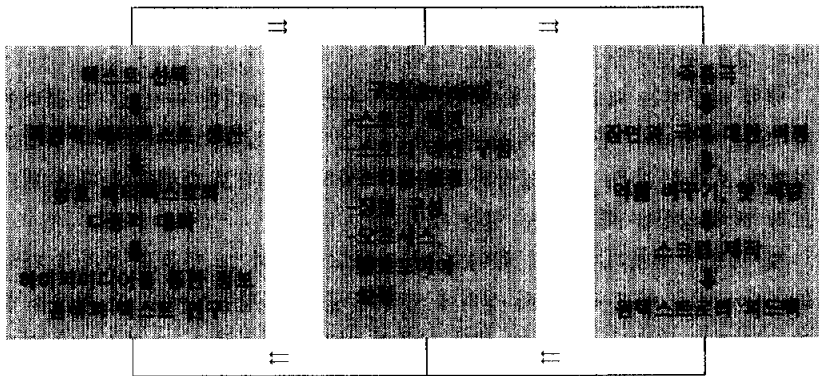
스크립은 제작할 수도 있고, 제작하지 않고 스토리 라인만 정리해 둘 수도 있다. 유스 씨어터 공연을 관객 앞에서 하는 경우 스크립은 필수적이지만, 단순히 텍스트 연구 주체들만의 활동과 탈담론 구성만이 목적이라면 스크립 제작은 생략할 수 있다.

26) 핫 씨팅을 '즉석 토론'이라고 간단하게 번역하기도 하지만(최윤정, 「연극 놀이의 교육적 효용성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5.8. p.78.), 엄밀하게 말해 핫 씨팅은 일반적 토론 연극(forum theatre)과 다르다. 토론 연극에서 발화자와 수화자가 모두 연행자들이며, 관객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에서 부분적인 반면, 핫 씨팅에서는 대화가 연행자와 관객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핫 씨팅에서 연행자는 현실적인 자아를 지양하고 극적 자아로서 발화하는 것을 끝까지 고수해야 하며 관객의 질의에 대답해야 하고 관객의 반응에 재반응해야 한다. 특히 연행자가 부정적인 인물로 극에 등장했을 경우, 관객들의 비판과 질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때에도 인물로서의 성향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

이러한 전과정은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피드백됨으로써 텍스트 연구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가 있다. 그 중 원텍스트로의 피드백은 유스 씨어터를 마치면서 꼭 거쳐야 할 단계인데, 이 과정을 통해 주어진 텍스트, 담론과 자신들의 탈담론을 비교·분석하여 탈담론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유스 씨어터의 변용적 네트워크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화살표는 진행 순서나 피드백의 방향을 나타낸다.



Ⅲ. 유스 씨어터의 실제

1. 텍스트 선택과 직관적 메타텍스트 생산

IMF. 구제 금융이 들어선 이후, 범죄 사건들이 더욱 흉포화된다는 말을 자주 접한다. 그 사건들 중 하나를 텍스트로 선택하여 그 텍스트를 다양한 초점화를 통해 해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 텍스트에 대한 탈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고등학생들의 흥미도를 고려하여 텍스트로 삼을 수 있는 것은, 1998년 9월 7일에 발생한 ‘아버지의 아들 손가락 절단 사건’이다. 학생들은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했다’라는 은유와 환

유로 이루어진 통합체 텍스트²⁷⁾를 대하고, 아들에 대한 연민과 아버지의 잔인성에 대해 비판했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컨텍스트적인 상황의 고려 없이 인륜을 저버린 행동이라 분개했다. 컨텍스트를 고려한 텍스트 읽기라 하더라도, 그 컨텍스트는 이미 언론에서 담론으로 구성하여 이데올로기가 은연중에 개입된 것이어서 발화 주체의 주관성을 벗어날 수 없는 메타컨텍스트(meta-context)였다.

'아버지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했다.'라는 텍스트에서도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이유를 '보험금을 타기 위해'라고 명시해 놓음으로써 텍스트 수용자는 '절단'의 본질적인 목적을 '보험금'에 한정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가장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 문장에 이미 발화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학습자들은 감정적 판단 중지(epoche)를 통해 현상 그 자체를 보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런 판단 중지 과정을 거친 순수 이성적 노에마권(noetic-noematic sphere)²⁸⁾에서 직관적·선험적 전환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된다.

교사는 이 텍스트의 담론적 특성을 간파하고 학생들이 텍스트의 언표들을 투시해 그것의 非客觀性과 허구성을 느끼게 하고, 여러 컨텍스트들을 고려한 새로운 메타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메타텍스트는 각각의 학습자들이 생산한 여러 메타텍스트들 간에 상호적 대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27) '아버지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했다'라는 통합체는 다음과 같은 은유·환유로 재구성될 수 있는 잠재태이므로, 수화자는 이 문장에서 은유·환유 관계에 있는 다른 기호들을 연상하여 추측하면서, 문장을 확대 해석하게 된다.

아버지	가	보험금	을	타기 위해	아들의	손가락	을	절단했다
부모	도	돈	만	획득하기 위해	자식의	몸	도	가로했다
어머니	마저	욕망	도	쟁취하기 위해	부모의	목숨	마저	팔았다
친척	만	생계	라도	우려내기 위해	친척의	미래	만	희생시켰다
⋮	⋮	⋮	⋮	⋮	⋮	⋮	⋮	⋮

28) Choi, won., 앞의 글, p.5.

2. 상호 메타텍스트의 다중 대화

다중 대화적 공간에서는 모든 목소리들이 수용되고 인정되며 학습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직관적 메타 텍스트를 자유롭게 펼쳐 보이게 된다. 이 때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이 대화적 공간은 분명 놀이의 장이지만, 의사 소통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의사 소통 능력이란 단순히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능력만이 아니라 대화하는 사람들이 상호 이해를 위해 필요한 규칙을 인지하고 준수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런 능력을 가진 학습자들은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으며 이 세계들에 대해 각기 상이한 태도와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외적 자연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사실적 진리 여부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에 대해서는 상호 작용적 태도를 취하면서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를 요구²⁹⁾하게 되는 것이다.

손가락 절단 사건은 사회적 현상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호 작용적 태도가 요구되므로 학습자들의 다양한 목소리 중 하나를 지배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그 각각의 메타텍스트들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가락 절단 사건에 대해 생산되는 메타 텍스트의 관점을 거칠게 정리³⁰⁾하면 다음과 같다.

- 가.父子有親은 말할 것도 없이 기본적 인륜을 파괴한 행위라는 윤리적 관점
나. 그러한 빈민자를 만들어낸 제도의 비합리성을 문제 삼는 사회적 관점
다.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아버지의 내적 심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정신분석
적 관점
- 라.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분노하며 그 아버지를 매도하는 대중들의 태도에
회의를 보이는 관점

29) 최종옥, 「아버마스와 푸코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http://www.munhwa.co.kr/geacsuk/19980801/805.html>.”

30) 학습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다중적이고 역동적이나 편의를 위해 다섯 가지로 제한하여 논의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

마. 아버지가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게 한 아들의 심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관점

위 직관적인 메타 텍스트는 컨텍스트나 여러 담론들을 검토하고, 텍스트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타당성이 입증되거나 보충될 수 있고, 혹은
완전히 전복될 수도 있다. 대화의 장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의견이 흔적
(trace)이 됨을 인식하고, 그 위에 새로운 코드화 방식으로 기호를 다시 쓰고,
그것을 다시 흔적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메타텍스트는 더욱 정교
해진다. 메타텍스트는 결정체가 되지 않고 끊임없이 산중(dispersion)되면서
학습자들도 함께 재구성된다. 이러한 인식 과정에 학습자들은 좀 더 심층적인
텍스트 연구를 요구하게 되어 하이퍼미디어를 통한 직관적 메타텍스트의 재구
성과 보충(supplement)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3. 하이퍼미디어를 통한 정보 검색과 텍스트 연구

가. 인터넷 신문을 통한 사건 텍스트 검색

처음으로 검색해야 하는 정보³¹⁾는 사건의 전말이다. 인터넷 신문 중 지난
기사를 비교적 빠짐 없이 검색할 수 있는 것은 ‘한겨레 신문’이다. 한겨레 신문
은 지난 기사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기사를 검색할 수도 있고 인쇄 화
면도 불러 올 수 있어 정보 검색이 용이³²⁾하다.

한겨레 신문에서 ‘손가락 절단 사건’에 대해 올려진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 (1)[손가락 사건] 수사 인력 대폭 보강 - 18살 용의자 추적
- (2)[속보] 손가락 절단 사건 수사 장기화 조짐
- (3)[사건] 손가락 절단 사건은 아버지의 자작극

31) 학습자들의 스키마가 수용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하지만, 개별적 능력
의 차가 있으므로, 자료는 쉬운 것부터 조금 어려운 것까지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

32) 인터넷 한겨레 신문에서 손가락 절단 사건에 대해 올려진 기사를 프린트하려면
"http://www.hani.co.kr/han/data/L980907~12/print/....html"로 들어가야 한다.

- (4)[사건] 아들 손가락 절단 사건 시민 반응
- (5)[사건] 손가락 절단 사건 전문가 진단
- (6)[사건] 아들 손가락 절단 사건 학교 표정
- (7)[사건] 아들이 침묵한 이유는
- (8)[사건] 아들 손가락 자른 강종렬씨는 누구인가
- (9)[사건] 아들 손가락 자른 강종렬씨 일문일답
- (10)[사건] 손가락 절단 사건 일지

(3) 부터는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9월 12일자 기사 제목이다. 사건은 9월 7일 발생하고 8일부터 수사에 들어가고 결국 나흘만에 밝혀졌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사는 아들에 대한 연민과 아버지에게 대한 경악, 시민들의 분노로 일축된다. 그 예가 될 수 있는 것을 기사에서 몇 가지 직접 인용하여 그 반응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의 번호는 각 항목의 연번을, 괄호 안의 번호는 위 기사 제목에서 인용되었음을 나타내는 번호이다.

아들에 대한 연민	아버지에게 대한 경악	시민들의 분노
<p>1-(7). 간호사들이 “손가락이 잘릴 때 많이 아프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정우군은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라고 대답해 의료진들을 놀라게 했다.</p>	<p>1-(3). 강씨는 사건 직전 보험 모집인에게 “손가락이 잘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며 물어 봤고 정우군을 설득해 미리 은행 연습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p>	<p>1-(4). 배진숙씨(35·경남 여성회 부설, 성·가정상담소이사)는 “정우군 아버지가 TV에 비치는 모습은 멀쩡했던 것으로 미루어 생계 문제로 인한 IMF형 범죄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단언하기 힘들다”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로 인한 사건인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p>

<p>2-(7). 경찰은 “정우군이 겁이 많은 어린이지만 까니를 학교 급식에 의존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 이같은 아버지의 범행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3-(7). 특히 정우군의 아버지는 평소에도 아들에게 “내가 몸이 약하니 언제 죽을 지 모른다.”는 말로 정우군에게 불안감을 심어 주었고 이에 어린 마음에 내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아버지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분석이다.</p>	<p>2-(7). 이 끔찍한 사건은 생활고에 시달린 아버지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아들의 손가락 절단을 생각해냈고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는 정우군의 동심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p> <p>3-(8). 범행이 밝혀진 뒤 주민들은 “지금까지 도와줬고 아들이 다친 뒤에도 도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왔는데 강씨는 자신을 도와준 이웃들을 철저히 속였다”며 분노를 터뜨렸다.</p>	<p>2-(5). 이나미 정신과 전문의 = 이번 사건의 저변에는 내 자식은 내 것이므로 내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오도된 가치관이 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p> <p>3-(5). 고려대 손장권 교수(사회학) = 충격적이다 ...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패 구조와 왜곡된 의식 구조에 얽혀서 발생한 세기말적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된다.</p> <p>4-(5). 하루 빨리 사회 구성원들이 자생력, 가족에 대한 자부심 등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이런 끔찍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p> <p>5-(5). 전문가들은 ... 우리 사회에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는 점차 원자화되고 있는 가족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가정 및 학교에서의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했다.</p>
<p>1-(6). 교직원회의에서는 아들을 제물로 보험금을 타려 했던 아버지를 집중 성토했면서 시종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범행을 한 아버지는 미워해도 정우군에 대해서는 최대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p> <p>2-(6). 4학년 1반의 한 어린이는 “정우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짐작이 가며 병원에 찾아가 위로해야겠다”며 “하나뿐인 아들의 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타내려는 정우 아빠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p>		

위에서도 보듯이, 기사는 강종렬 한 개인에 대한 비판과 그 아들 강정우에 대한 개인적 동정심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적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했다 해도 그것은 윤리적 가치관이라는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父子가 놓인 상황, 컨텍스트는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기사를 초점화에 재초점화하면서 새로운 메타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메타텍스트는 경제를 지배하는 주도층의 권력을 정당화시키고 그들의 헤게모니를 공고히 하는 왜곡된 기제로 행사될 수도 있다.

아래의 다양한 관점에 의해 생산된 담론은 직관적 메타텍스트에서 정교화 되어 주체로서 학습자들이 발화한 내용이다. 이러한 담론을 생산해 내기 위한 하이퍼미디어 활용은 학습자들의 개별적 능력 차이나 그들이 본래 지니고 있던 스키마에 의해 수준이 다양화된다. 특히 '정신 분석적 관점, 대중 심리적 관점, 아들의 심리적 관점'에서의 담론 생산은 학습자들만의 능력으로 구성해 내기가 어렵다. 물론, 여기까지 수업의 난이도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고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통한 담론 구성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이러한 관점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과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개별적 차이는 유스 씨어터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유스 씨어터를 더욱 다중화 시키면서 역동적인 양상을 띠게 만든다.

이러한 다중적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사이트를 학습자들이 검색하기 이전에 교사가 미리 확인해 두고 학습자들에게 그 이론적 바탕에 대한 스키마를 간략하게 제공하고 사이트를 검색하고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나. 윤리적 관점에서 생산된 담론

윤리적 접근법에 대해 비교적 다양한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곳은 부산대학교 한홍식 교수의 홈페이지³³⁾이다. '공개자료실'에서 '윤리교육, 인격론, 종교와 윤리'에 클릭하면 별로 길지 않으면서 쉬운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강종렬씨는 자신의 아들이 겪게 될 신체적 고통과 보험금을 맞바꾸려 했던 사람이다. 보험금은 그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아들의 고통은 그것을

33) <http://hyowon.pusan.ac.kr:8080/~hans/>

위한 수단이다. 돈이 목적이 되고 아들이 수단이 된, 목적과 수단의 전도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분명 우리의 도덕의식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강종렬씨에 대한 비난은 타당하다.

반론도 있을 수 있다. 도덕 의식은 교육과 사회화 과정에 생기는 것이고, 하층 계급으로서 강종렬씨는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음으로 해서 우발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층 계급은 중간 계급에 비해 도덕적으로 미성숙하다고 알려져 있다. 중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이지 않으며, 삶의 목표에 있어서 장기적인 목표와 생애 전반에 걸친 야망을 키워나간다. 반면, 하층 계급은 단기적인 목표와 당장의 욕구들에 집착한다.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행복의 추구보다 즉각적인 쾌락에 집착하는 하층 계급의 성향이 중간 계급에 비해 도덕적으로 미숙하다³⁴⁾는 것이다.

하층 계급의 도덕적 발달이 지체되는 이유는, 그들이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주체성을 갖출 수 없는 외적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 해석될 수 있다. 도덕 규칙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져야 하지만, 이들은 교육이라는 장에서 소외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정의적 측면을 간과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해석은 강종렬씨와 같은 사람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엄격해 말해, 강종렬씨는 아들을 한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도구로 物化시켰고 이는 인간의 존엄성 준수라는 기본적인 선과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러한 소외, 물화, 인간의 존엄성이 해체되는 양상은 사회적 접근에서도 확인된다.

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생산된 담론

사회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부경대학교 김희재 교수의 '사회학 개론' 사이트³⁵⁾로 들어가면 쉽게 구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범죄와 일탈 행동', '가족', '도시화와 도시 문세'를 클릭하면, 텍스트로 삼은 사건에 대한 심층

34) http://hyowon.pusan.a.../read.cg!b.=31c&c=r_p&n=892435861=1&s

35) <http://nature.ottas.co.kr/sointr1.html>

적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이트에는 '과제 참고 자료:10대 한국병 (중앙일보 특집 시리즈)'도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는 특히 IMF 이후 달라진 모습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서술해 놓고 있어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 '자유 게시판'에는 금방금방 올라오는 '따끈따끈'한 정보(발화)들이 '아우성'치고 있어 더욱 학습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만들어 준다.

사회학은 인간들의 집합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활에 대한 관심이므로 전생활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인 시각을 요구³⁶⁾한다. 집단이나 사회의 대다수 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규범과 가치에 순응하지 않는 행동 양식인 일탈(deviance)도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학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 내용은, 일탈 행위에 필요한 기술과 범죄 행위에 유리한 동기, 충동, 합리화 및 태도를 포함³⁷⁾한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 해체 과정 중에 더욱 확산되며, 이 중 가족 해체는 일차 집단의 붕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시된다. 사회 해체는 규범의 해체를 동반하고, 사회의 개인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사회에 적절히 연계시키지 못하게 하여 결국 개인도 해체³⁸⁾되는 결과에 이른다.

IMF. 구제 금융은 우리 사회의 큰 변인으로 등장했다. 사회는 재구성되어야 했고, 그 와중에 사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많은 실업자들과 노숙자들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었다. 가족이 해체되고 노동력을 상실한 강종렬씨는 모든 것이 物化되어 가는 아노미의 상황 속에서 일탈 행위를 하게 되었고, 그것은 또한 사회에 반작용하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조금 더 연구를 심화시키려면 맑시즘(marxism)의 개념인 '정경유착'을 통해 접근해 볼 수도 있다.

우리 나라는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공인 받는다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자마자 외부 수혈과 도움 없이는 자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

36) "<http://nature.ottas.co.kr/sointro/whatso.htm>."

37) "<http://nature.ottas.co.kr/sointro/개념찾기.htm>."

38) "<http://nature.ottas.co.kr/sointro/deviant.html>."

락했다. 그 이유를 정경유착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정경유착은 이해 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력과 기업의 야합이므로, 돈이 매개되고 그 과정에서 비리와 부정과 부패가 싹튼다. 선거철에 살포되는 엄청난 돈은 금권정치적 특성을 반영한다. 각 정당의 지구상 운영비도 막대하다. 이러한 돈은 후원금·당비·기탁금·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지만, 공식 경로를 통해 공급되는 정치 자금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므로 기업은 비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얻는다. 이러한 메카니즘 속에 은행 대출이 비자금 조성의 수단이 되고 한보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고비용 정치 구조는 과소비를 조장하는 역할도 한다. 정치 논리에 입각해 결정되는 정부 사업에 낭비가 만연하게 되고 공짜로 생긴 돈을 유권자들이 아껴 쓸 리가 만무하다. 정치 건달이 늘어날수록, 근로 의욕·신기능 습득 의욕이 확산되기 어렵게 되는 것³⁹⁾이다.

결국 정치와 경제의 유착에 의해 경제가 부실화되고, 여기에 과소비가 없지 않으면서 실업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강종렬씨와 같은 사람도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라.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생산된 담론

강종렬씨의 심리 측면에서 텍스트에 접근해 볼 수도 있다. 강종렬씨의 내면을 읽기 위한 허구적인 공간은 시뮬레이션이나 사이코드라마로 구성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강종렬씨를 내담자로 설정하여 그의 실존을 탐구하는 게슈탈트(gestalt) 상담 방법⁴⁰⁾을 통해 그 행위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게슈탈트 치료의 기본적인 도구는 자각이다. 억압된 상태에 있는 감정들과 혼돈된 상태에 있는 감정들, 외부에 투사된 감정들을 자각하여 그러한 감정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치료의 목표이다. 유기체의 욕구는 게슈탈트를 형성하여 감정의 형태로 의식으로 떠오르는데, 가장 화급한 욕구가

39) 이한구, 「돈 먹는 정치, 경제 국치를 불렀다」, 중앙일보·한국개발학회 공동기획 10대 한국병, "http://www.joongang.co.kr/online_news/series/10_disease/.../0109_1.htm."

40) 게슈탈트 상담 방법이 비교적 쉽고 간략하게 올려져 있는 사이트는, "http://counsel.or.kr/book_10-2.htm"이고, 이후에 제시되는 게슈탈트 상담 기법의 내용은 이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전경(figure)으로, 다른 욕구들은 배경(ground)으로 밀려난다. 그 욕구가 해소되고 나면 다른 욕구가 다시 전경으로 나타나 해소되는 과정이 되풀이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유기체의 자기 조정 능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만, 심리 장애 상태에서는 자기 조작(self-manipulation)과 환경 통제(environment control)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유기체가 조정을 통해 욕구 해소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했을 때 강종렬씨는 전경화되어야 할 욕구와 배경으로 남아야 할 욕구 사이에 혼돈이 일어나고, 자기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 조작과 환경 통제로 인한 심리 장애로 사건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는 동시에, 강종렬씨가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파악하고 자아와의 관련성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빈 의자 기법’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

‘빈 의자 기법’은 사이코 드라마에서 유래된 것으로, 내담자가 바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극적으로 자각하게 하는 방법이다. 내담자와 관계를 갖고 있는 대상이 빈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게 하고, 그(그것)와 대화를 나누도록 함으로써 외부로 투사된 자신의 감정을 도로 찾아 가게 하는 것이다.

강종렬씨의 대화 대상은 사회, 이웃 사람들, 혹은 자신의 아들로 설정해 볼 수 있다. 강종렬씨가 사회와 이웃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자신의 외부 상황을 탓하면서 비판만 했다면, 이 빈 의자 기법을 통해 우선 자신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아들을 자신에게 속한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 인격체인 아들 자체로 파악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빈 의자 기법을 통한 계슈탈트 치료는 구안(devising)을 할 때 극적 장면으로 설정될 수 있다.

강종렬씨의 내면적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매체가 계슈탈트 상담 기법이라면, 아들의 손가락 절단이라는 행위를 한 내면적 심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를 역시 심리학적으로 살펴 볼 수 있겠다.

강종렬씨의 가족은 해체되었으며, 가족 구성원을 결합시키는 기본적 조건인 생계 유지조차 위협을 받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욕구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강종렬씨는 생활

보호 대상자였으므로 매달 20만원을 동사무소로부터 지급 받았다. 20만원은 분명 적은 돈이지만 아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최소한의 비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종렬씨는 20만원을 식료품비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으로 지출했다. 보험금으로 큰 돈을 획득할 계획이었다. 강종렬씨는 단순히 생계 유지라는 욕구(need)를 가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욕망(desire⁴¹)을 가졌던 것이다.

강종렬씨의 욕망은 기호학적 입장⁴²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소비 사회에서 상품은 사용 가치가 중요하지 않고 기호 가치가 중요하다. 사용 가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지만, 기호 가치는 행복과 사회 지위를 표시하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 10대의 학생들이 10만원이 넘는 운동화를 원하는 것은 상품 선택의 핵심 기준을 쓸모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행복과 지위의 표시 기호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0대 학생들의 눈에 운동화는 얼마나 튼튼하나가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 내가 낄 수 있는 기호냐 아니냐가 문제⁴³다.

대중매체는 그러한 기호와 이미지들을 계속적으로 양산해 낸다. 특히 IMF 구제 금융이 들어서기 이전, 대중들은 이미지를 폭식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본주의가 비대해지면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모델(simulation model)이나 이미지가 부유하였고, 대중들은 모조로서의 이미지를 소비하고 실제 속에 산다는 착각을 일으킴으로써 과실재(hyper-reality)가 현전으로서의 실재를 밀어내고 실재가 있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소비자는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매체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징적 기호와 그 이미지

41) 욕구(need)와 욕망(desire)은 다른 개념이다. 전자는 쉽게 충족될 수 있는, 잉여분이 남지 않는 단순한 요구라면, 후자는 늘 잉여분이 남아 환유를 만들어 내는,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인간 주체의 본질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권택영, 『영화와 소설 속의 욕망 이론』, 민음사, 1995. 22~48쪽 참조.)

42) 욕망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은 현재가 후기 자본주의 소비 사회라는 보드리야르(Beaudrillard, Jean.)의 이론과, 욕망의 환유를 읽은 라캉(Lacan, Jaque.)의 설명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관련 사이트는,

"<http://sir.kaist.ac.kr/~potin/cinema/article/ECRI/ECRI-1.html>",

"<http://social.snu.ac.kr/study/5/차원/2/4.htm>"이다.

특히 "<http://user.chollian.net/~ehfl/list2.htm>"에서는 보드리야르의 이론과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하이퍼미디어 매체의 시각성을 확보해 준다고 하겠다.

43) "<http://campus.nownuri.net/lecture/phil6.html>"

를 소비하게 되었다. 영상 매체나 광고도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하여 과실재에 대한 구매 충동을 유발하였고, 이로써 모든 것이 이미지에 의하여 소비재가 되고 모두가 소비자가 되는 거대한 욕망의 왕국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비 사회의 한 소비자로서 강종렬씨도 역시 이미지와 기호를 소비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였고, 그것을 아들의 고통과 바꾸었던 것이다. 노동력을 팔 수 없는 강종렬씨는 아들의 고통을 팔아 기호를 획득한 것이다. 여기서 욕망의 끊어질 수 없는 거대한 환유 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욕망 앞에서는 윤리와 법이 무색했고, 그 욕망이 무참히 깨진 후에야 강종렬씨는 자신의 삶 앞에 윤리와 법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마. 대중 심리적 관점에서 생산된 담론

기호와 이미지에 대한 대중의 욕망은 강종렬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대중들의 입장에서 재고⁴⁴⁾해 볼 수 있다. 소비 사회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과실재에 대한 욕망이 현실을 디즈니랜드와 혼동하게 만든 상황에서, I.M.F.라는 게릴라가 급작스런 기습을 하였다. 욕망의 환유가 더 이상 꼬리를 잊지 못하고 단절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다수의 대중들은 현실이 욕망을 성취시켜 주리라는 상상계적 믿음에서 차츰 그 욕망을 억압하는 I.M.F.라는 규범을 인정하는 상징계로 들어서게 되었지만, 소비 사회는 여전히 존속하였고 대중매체는 여전히 인간의 욕망을 생산하므로, 그 상징계로의 진입도 불안정하였다.

이러한 기호와 이미지에 대한 욕망은 내적 중계를 형성하며 빠르게 모방되

44) 대중의 이미지에 대한 소비 욕망은 보드리야르의 이론에, 지라르(Girard, René)의 이론을 적용해 설명해 볼 수 있다.

관련 사이트는,

"http://my.netian.com/~PHILNFO/doc/report_data/kimhyun.htm."

(김 현 문학 전집 10 『폭력의 구조/시칠리아의 암소』, 문학과지성사, 1992. 요약)

"file:///C:/-W-MDIR-W-사상특3집_김진식.htm."

(김진식, 「20C 사상 특집 시리즈-르네 지라르 모방 욕망과 소설 이론」, 라벨룸 여름호, 1998.)

"file:///C:/-W-MDIR-W-사상특집_박정오.htm."

(박정오, 「20C 사상 특집 시리즈-르네 지라르 문화에 숨겨진 폭력」, 라벨룸 여름호, 1998.) 등이다.

어 삼각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구도에서 공통된 대상을 서로 차지하려니까 자연히 경쟁의식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은 집단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적대감과 증오심을 갖게 하여 엄청난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⁴⁵⁾을 초래하였다. 이 공동체의 파멸을 막기 위해 모든 문제의 화근과 서로에 대한 증오를 이 희생자 탓으로 돌려 폭력을 해소할 수 있는 희생제의가 필요⁴⁶⁾한 것이다.

IMF는 분명 우리 나라 대중의 욕망을 억압하는 재앙이며, 그와 동시에 역설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더욱 부채질하여 구성원들 간의 욕망 모방 현상을 증식시켰고, 이런 폭력적인 분위기를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워줄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하게 되었다. 강종렬씨는 파마코스(pharmakos)⁴⁷⁾였으며, 대중들은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기호에 대한 욕망을 숨길 수 있었으며, 그것은 '정의 실현'이라는 이름 아래 가능하였다. 대중에게 있어 강종렬씨는 인간 쓰레기이며 사회의 최하층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하층은 존재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소속력이 약한 소외자를 희생시킴으로써 폭력 욕구는 일시적으로나마 해소되고 집단은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한 개인에게 집단 전체의 이름으로 단죄되는 희생 제의는 '성스러운 도덕과 법률'의 잣대라는 관점에서 행해졌고, 결국 집단 구성원들 간의 폭력을 숨길 수 있게 되었지만, 이것 또한 일시적인 해소책이므로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희생양이 필요했고, 많은 사건들이 마스크를 타고 IMF. 범죄형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선정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대중들은 흥분하며 그를 매장시키려고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폭력 욕구를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것이다.

바. 아들의 심리에 초점을 둔 담론

메타텍스트 생산에 있어서 사건의 주체는 아버지이므로 아들에 대해서는 초점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아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서 '강종렬'이라는 텍스트만을 해석한다는 것은 편협한 결과를 낳게 된다.

45) "http://my.netian.com/~PHIL.NFO/doc/report_data/kimhyun.htm."

46) 박정오, 앞의 논문, 1쪽.

47) 파마코스는 고대 그리스의 인간 희생물로서 재앙이 덮쳤을 때 민심을 수습하고 평화를 되찾기 위해 재앙의 원흉으로 몰아 처형되곤 했다.

아들 정우군에 대한 반응은 ‘아이답지 않다’, ‘어른스럽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등으로 요약된다. 인터넷 신문에서 확인했듯이 정우군은 아버지에게 대한 적개심은 전혀 없었고 오직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은 희망만 있는 듯이 보였다.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도록 한 이유도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정우군의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와 공동 생활’이라는 원인과 ‘손가락 절단 용인’이라는 결과라는 일대일 대응 관계를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일까?

정우군을 코기토(cogito)적인 인간으로 설정하고 접근하면, 그를 알 수 있는 모든 비상수가 봉쇄되어 버린다. 정우군은 데카르트적인 인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를 해석하는 매체는 이성이나 합리성, 혹은 법률이 아니다. 정우군이 그러한 인간 주체였다면,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손가락을 잘랐다는 일견 단순한 텍스트가 성립될 수가 없다. 정우군을 해석하기 위해 데카르트적인 인간 개념에 대해 비판을 한 하이데거와 이를 또 비판한 푸코의 주체 개념, 들뢰즈의 법 개념을 활용⁴⁸⁾할 수 있다.

로고스 중심주의에 입각한 인간은 의식적 주체로서 상식적인 통념에 맞는 행위를 하는 존재로 해석된다. 정우군의 경우, 사회의 통념에서 볼 때 예외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정상’에 대한 ‘비정상’이라는 규정만 도출된다.

로고스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정우군을 한 실존으로 보고, 그가 지향하는 노에시스를 고려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대중들이 파악하는 가치가 아니라 자기만의 가치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어머니와 분리된 상황에서 아버지와와 분리 불안으로 떨었고 결국 자신의 손가락을 기꺼이 내놓았다. 아버지의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든가, 법률에 저촉된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법률과 선을 떠난 사고를 한 것이다.

자신의 아버지가 구속되면서 정우군은 그것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우군에게 법은 선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직 처벌 이후에 그것이 법에 어긋난 행위였다는

48) 이와 관련된 사이트는,

“<http://khlab.kyunghee.ac.kr/~kcon12/foucault/cri.html>”

“<http://home.taegu.net/~decon/lock/down/decon14.html>”

“<http://www.propose.co.kr/moonsa/40/서동욱.htm>”이다.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써 죄의식이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은 죄를 증명해 나가는 절차가 되고 판결문에 의해 아버지의 행위가 단순하게 규정되는 것이다. 자신의 아버지가 판결을 받아도, 정우군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다는 사실 하나이다.

이러한 법 개념은 강종렬씨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강종렬씨의 기호와 이미지의 소비 욕망은 법률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법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의식도 없다. 오히려 도덕적 의식이 엄격한 사람은 늘 죄의식을 갖고 살아 간다. 죄의식이라는 것이 애초에 심리적인 개념이므로, 위법자보다 법의 요구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이 더 죄인⁴⁹⁾일 수 있는 것이다. 강종렬씨에게 구속 영장이 떨어지기 전에 그는 죄인이 아니었고, 그가 범죄 행위를 했음을 모두가 인정하였을 때 그는 비로소 죄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강종렬씨의 행위는 여전히 도덕의 영역 밖에 있다. 도덕은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⁵⁰⁾해 준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과 관련해서, 자신의 핏줄인 아들에게 아버지인 자신이 고통을 준다는 것은 분명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강종렬씨는 욕망과 도덕적 죄책감의 긴장된 줄다리기로 괴로웠을 것이다.

요컨대 아들의 관점에서 존재와 법, 도덕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강정우군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보금자리이며, 법의 형평성 문제 등은 차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4. 구안(devising)과 즉흥극

가. 스토리 라인 구성과 스토리 텔링

드라마는 총체적 텍스트(total text)⁵¹⁾이다. 이 총체적 텍스트를 이루는 언표는 언어적일 수도 있고 비언어적일 수도 있다. 그 코드화 방식도 다양해서 총

49) "<http://www.propose.co.kr/moonsa/40/서동욱.htm>."

50) 위의 논문, 사이트.

51) Chaudhuri, Una. *No Man's Stage: A Semiotic Study of Jean Genet's Major Plays*. Ann Arbor: UMi, 1986.

"<http://members.iworld.net/drama21C/book/paper/lhsburied.htm>"에서 재인용

체적 텍스트인 드라마는 어느 한 가지 기의를 지향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토리라인은 일방향의 선조적인 양식을 따르지 않으며 다중적인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는 다중성이 내재된 것이어야 한다.

하이퍼미디어를 통한 텍스트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듯이, 텍스트의 초점화 양상에 따라 다양한 담론이 생산될 수 있다. 이러한 담론들을 수용하면서 총체적 텍스트를 구성하는 것이 이 구안의 목표이다.

담론을 극화하기 위해 몇 가지 극적 설정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적 관점에서, 강종렬씨를 사회적 정의에 대한 반동인물이나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인물로 설정할 경우, 희극에서의 우스꽝스러운 평균 이하의 인물로서 관객들의 비웃음을 사게 만들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인물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은 '법정'⁵²⁾이나 '매스컴'에서이므로 법정 장면을 설정하거나 매스컴에서 시민들과의 인터뷰 장면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관점에서 강종렬씨는 부조리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자신도 일탈 행위를 통해 사회의 해체적 측면을 반영한 인물로 해석된다. 사회의 타락은 막간극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 강종렬씨의 사건을 법정 장면으로 구성하고, 극중에 정경유착의 비리 사건을 삽입하면 두 사건이 대비되면서 사회의 총체적인 붕괴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막간극을 삽입시키지 않고 법정 장면을 희화화시킴으로써 법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부조리한 모습을 극화시킬 수도 있다. 여기서는 후자의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셋째,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강종렬씨는 기호와 이미지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자기 조작과 환경 통제를 하게 된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자의 모습을 대변한다. 이런 모습은 강종렬씨의 심리 분석⁵³⁾을 하는 장면에서 극중극으로 표현할 수 있다. 빈 의자 기법을 활용한 계슈탈트 치료 상담 장면에서 강종렬씨를 포함한 소비 사회의 대중들의 이미지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이미지를 폭식하는 상징적인 장면을 극중극으로 연출함으로써 인간 욕망의 질

52) 법정 재판 장면을 극화하기 위해서는 모의 재판의 모습을 미리 학습해 두는 것이 좋다. 참고할 만한 모의 재판 사이트는,
 "http://user.chollian.net/~shandya/trial.htm."
 "http://my.netian.com/~crimlaw/27회사진.html"

53) 실제 강종렬씨는 심리 분석을 통해 정상인으로 판명되었다.

긴 환유를 보여 줄 수 있다. 혹은 심리 분석 중인 강종렬씨의 뒤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대중 사회 소비자들의 욕망을 반영하는 모습을 투사시켜도 좋을 것이다.

넷째, 대중 심리적 관점에서 강종렬씨는 I.M.F.라는 재앙으로 인한 집단 구성원들의 폭력적 분위기를 잠시 해소시켜 주는 희생양으로 기능한다.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상상적인 장면 연출을 해야 한다. 시간 의식을 해체 하여 법정 장면에서 바로 고대 희생 제의 장면으로 전환시키는 부조리극적인 양식을 도입할 수 있다.

다섯째, 정우군을 초점화 시키면, 강종렬씨와 정우군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해석될 수 없는 실존적 인물로서, 코기토 내에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초점은 정우군이다. 이전까지 극의 전면에 부각되었던 강종렬씨 대신 정우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줌으로써 대중 혹은 관객들이 간과했던 정우군의 상황과 심리를 이해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초점화에 따른 다선적인 스토리 라인 구성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선/악이라는 서열 관계를 이루는 이항대립의 흑백사교의 오류를 벗어나게 해 주고, 텍스트의 잠재적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사고력을 신장시켜 준다.

초점화에 따른 스토리 라인을, 공간(장면), 에토스(ethos, character), 미토스(mythos, plot), 분위기로 설정하여 단순화시킬 수 있다.

에토스는 행동자가 가져야 하는 일정한 성질이며, 미토스는 스토리 내에서 행해진 전체적 이야기, 사건들의 결합체, 행위의 연속체⁵⁴⁾이다. 분위기는 극의 전반적인 코드화에 의해 암시되고 표상되는 총체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54) 민병욱, 앞의 책, 17~18쪽.

에토스는 '인물의 성질'인 캐릭터(character)라는 의미이지만, 본고에서는 내용을 단순화하기 위해 '등장인물'인 피슨(person)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등장인물의 에토스는 미토스에서 간략하게 서술될 것이다.

주요 인물	주요 사건	주요 의미
<p>피고인-강종렬, 변호사, 검사, 판사, 그의 방송국 기자와 카메라맨, 방청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검사가 사건의 전말을 보고 하며, 강종렬씨의 반인륜적 행위를 매도한다. ② 변호사가 강종렬씨의 정황을 감상적으로 표현하며 판사에 게 연민과 동정을 호소한다. ③ 판결은 연기되고, 강종렬씨가 퇴장하자 몰려오는 기자와 카메라맨들, 강종렬씨는 별 말이 없고 도덕적으로 미숙한 사람 처럼 보인다.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p>강종렬씨는 도덕적으로 미숙한 평균 이하의 인물로 설정하고, 그의 법정 관계자들도 회화화시켜 알라존(alazon)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장면을 진지하지 않고 가볍게 구성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서사극의 소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p> <p>시민들과 방송 관계자들은 알아 듣기 힘든 소리를 크게 내어 희극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킨다.</p>
<p>강종렬씨와 정우군, 이웃, 정우군의 선생님, 그의 시민 단체와 방송국 관계자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강종렬씨 이웃은 평소에 자신들이 많이 도와 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배신감을 표현한다. ② 정우군의 선생님은 매우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 정우군의 미래와 함께 교육 전반에 대한 장래를 걱정한다. ③ 시민 단체의 구성원들도 지적인 어조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붕괴 위기를 지적한다. ④ 이러한 반응들을 리포터들은 과장시켜 보도한다. ⑤ 강종렬씨는 말이 없고, 정우군은 강종렬씨를 쳐다보고 있다. 	<p>이웃, 교사, 시민 단체 반응의 공통점은 사건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확대 해석하고 과장된 연사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장된 분위기를 더욱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방송국 관계자들의 모습은 통해 강종렬씨 사건의 본질이 간과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 희생자가 필요한 IMF라는 재앙을 복선적으로 극화시킨다.</p> <p>이러한 시민들의 분위기와 대비하여 강종렬씨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연출하여 그의 파마코스적 특성을 부각시킨다.</p>
<p>강종렬씨, 극중극에 등장하는 욕망의 소비자들(시민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강종렬씨는 앞에 있는 빈 의자에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여 사회에 대한 비판과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한다. 	<p>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이다. 무대 위에는 강종렬씨와 빈 의자만이 놓여 있으며(의자가 있더라도 그는 들어주는 역할만 할뿐이다), 자신이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말할 때와 빈 의자에 앉아서 말할 때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p>

종간, 장면	장르	장면	주요 내용
심리 분석	강종렬씨, 극중 극에 등장하는 욕망의 소비자들(시민들)	<p>② 강종렬씨가 그 빈 의자에 앉아 사회의 입장을 대변해 자신을 비판하고, 아들의 입장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연출한다.</p> <p>③ 강종렬씨의 사회에 대한 비판 장면에 대중들의 이미지에 대한 욕망을 보여 주기 위한 화려한 장면이 극중극으로 삽입된다.</p>	<p>극중극의 장면은 강종렬씨와 대비되는 분위기이다. 무척 화려하고 과장된 상징적 기호로 연출한다. 이러한 극중극이 벌어지고 있을 때, 강종렬씨는 환희와 비통의 이중적인 표정을 짓는다.</p>
희생제의	지금까지의 모든 인물들과 희생제의를 주도하는 사제와 예수	<p>① 심리 분석 장면 이후에 다시 법정 장면으로 이어지고, 법정이 시민들의 강종렬씨에 대한 비난과 매도의 목소리로 시끄러워지면서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다.</p> <p>② 강종렬씨를 사형시키기 전에 사제가 등장하고 IMF라는 재앙을 불러온 자가 바로 강종렬씨와 같은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p> <p>③ 시민들은 강종렬씨를 향해 돌을 던지고, 이때 예수가 나타나 '죄가 없는 사람만이 돌을 던질 수 있다'고 말해도 여전히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돌을 던진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창녀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위와 같은 말을 하자, 사람들이 돌 던지기를 그만두고 모두 돌아 갔다는 이야기를 패러디한 것이다.) 결국 예수마저 강종렬씨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희생당한다.</p> <p>④ 강종렬씨나 김우군은 그저 무표정할 뿐이다. 그 무표정에서 비결전의 다중적 의미를 읽어 낼 수 있다.</p>	<p>강종렬씨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강하고 과장되게 연출한다.</p> <p>사제는 고대 그리스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분장시켜, 제의라는 엄숙한 분위기를 패러디하여 회화화시키도록 한다.</p> <p>예수도 사실적으로 분장시켜야 하지만, 그의 발언을 너무 부각시켜 극을 예수 쪽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한다. 그는 시민들과 관객들에게 암시를 줄 뿐, 단 순히 하나의 가치관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물이 되지 않아야 한다.</p> <p>강종렬씨와 정우군의 무표정함을 통해 희생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결국 법의 영역에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가족이 영원히 해체되어 미성년자 정우군만 남게 되는 상황을 연출해야 하지만, 그 두 사람에 대한 感傷의인 연민에 젖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p> <p>여기서 간과되지 말아야 할 점은, 강종렬씨의 죽음은 실재가 아니라 상징적 의사 죽음이러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장면은 삽입하지 말고, 시민들의 폭력 욕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p>

나. 스타일 설정과 장면 구성, 오프시스·멜로포이아 설정

각 장면에 따른 스타일과 오프시스, 멜로포이아도 총체적 텍스트인 극의 다성성을 해치지 않게 구성해야 한다. 특히 복잡한 무대 장치나 의상들의 시각적 기호는 오히려 관객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무대장치로서 가난한 연극(Poor Theatre)의 분위기를 내어야 할 것이다.

상상과 공유에 의해 구성되는 공간은 원형 공간으로서 '빈 공간'이다. 빈 공간은 신축성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극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고 배우들 간, 배우와 관객 간에 상호 의사 소통을 활발하게 만들어 준다.⁵⁵⁾

빈 공간이 재구성되는 과정은, '법정 공간(재판과 재판 후 시민들의 인터뷰) → 심리 분석 공간(계슈탈트 상담 공간과 극중극 공간) → 법정 공간 → 회생제의 공간'이다. 공간을 이루는 관점의 일원화를 지양하기 위해 '웃음'이라는 매체를 도입할 수 있다. 웃음은 이성적·비판적인 판단과 개인적 신념에 맞서는 힘⁵⁶⁾으로서 쾌락 원리(pleasure principle)를 통해 의미를 해체시킨다. 특히 그로테스크한 희극인 절대적 희극(absolute comedy)은 웃음이 동반하는 시니시즘(cinicism, 냉소적 비판)을 건강한 웃음인 키니시즘(kinicism)으로 전환시켜 의미 전달의 성격을 버리게 하고⁵⁷⁾ 모든 것에 대한 억압을 해소시킨다. 이렇듯 풍자적이면서 동시에 축제적, 해방적 기능을 갖는 희극은 놀이의 성격⁵⁸⁾을 띠는 카니발(carnival)이다. 이 카니발은 형식 파괴와 함께, 언어 유희, 대상 간 유사점을 찾기 힘든 은유, 아이러니, 역설 등의 기법⁵⁹⁾을 통해 지속적으로 극의 의미를 지연시키게 된다.

55) 김관형, 「빈 공간의 탐구」, 『한국 연극학』 제9호, 한국연극학회, 1997. 10~26쪽 참조.

56) 윤혜순, 「웃음, 주체, 시니시즘-보들레르의 웃음의 본질」을 중심으로.
"http://munhak.com/md/98sum/9.htm"

57) 키니시즘은 디오게네스(Diogenese)의 철학이며, 희랍어 키온(kyon-‘개’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58) 성은애, 「문학에서의 웃음과 시니시즘」.
"http://munhak.com/md/98sum/8.htm"

59) 류보선, 「시니시즘의 이율배반」.
"http://munhak.com/md/98sum/10.htm"

이러한 웃음을 극중에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거리두기를 통한 소원화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극의 공간(장면) 중 계슈탈트 상담 공간을 제외하고 모든 공간이 시니컬한 웃음을 유발하는 절대적 희극의 성격을 띠게 구성한다.

공간(장면)에 따른 전반적인 스타일과 오프시스, 멜로포이아를 단순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p>희극적 분위기 + 소외효과를 살린 서사극적 스타일</p>	<p>① 무대 :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구별이 확연히 나타나는 계단식 법정. ② 의상과 분장 : 법정 관계자들은 형형 색색의 가발을 쓰고 있고, 과장된 몸매를 드러내는 검은색 타이츠를 입어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강종렬씨역에게 차별적 기호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평상복을 입힌다.</p>	<p>법정 장면 중 판사의 일부 레시스(lexis)를 멜로포이아화하여 개 짓는 소리로 연출함으로써 법정과 지배층의 허위를 암시할 수 있다.</p>
		<p>① 의상과 분장 : 시민들의 특색적인 집단적 무의식을 연출하기 위해 모두 비슷한 평상복을 입히고, 특별한 분장도 할 필요가 없다.</p>	<p>시민들의 비판 장면을 코러스, 특히 빠르고 과장된 랩으로 처리한다.</p>
	<p>비극적 분위기의 사이코 드라마 스타일 + 희극적 극중극 삽입</p>	<p>① 무대 : 계단이 사라지고 아무 것도 없는 빈 공간에 빈 의자 하나만이 놓여 있다. 빈 공간은 강종렬씨의 내면을 무대 전면에서 부상시키는 매체가 될 수 있다. ② 이 장면에서 강종렬씨역 배우는 가면을 쓰지 않음으로써 '내면과의 만남'이라는 계슈탈트 상담의 본질을 표현한다. ③ 인형 : 극중극 장면의 대중의 이미지 소비 욕망을 연출하기 위해 화려하고 서구적인 인형을 활용한다. 인형의 조종자를 나타나게 함으로써 욕망에 지배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인형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들의 양식화된 마임(mime)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한다.</p>	<p>이 장면에서 사이코드라마는 일종의 모노드라마(mono drama) 중 쉐리라키(soliloquy)이므로 강종렬씨의 심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음악을 삽입하되, 感傷의인 분위기를 통해 강종렬씨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극중극 장면에서는 그로테스크하고 화려한 음악을 삽입하여 욕망의 시각화된 장면과 조화되도록 한다.</p>

고대 그리스	
희극적 분위기 + 부조리극 스타일	<p>① 가면 : 역사적인 양식화된 가면이 아니라 강종렬씨의 무표정함을 통해 더욱 다중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역설적인 의미로서 가면을 활용한다.</p> <p>② 의상과 분장 : 사제는 등신의 인형처럼 회계 분장하고 고대 그리스의 제사장처럼 의상을 입으며, 유형화된 행위를 통해 희극적 분위기를 낸다. 예수도 역시 유형화된 의상을 입는다.</p> <p>이 장면은 고대 그리스 제의와 예수의 일화를 몽타주하여 패러디한 것이므로 시간의 해체를 통한 부조리극적 분위기와 희극적 분위기를 견지하도록 한다.</p>

5. 공연 후 활동

유스 씨어터에서 첫 번째 연행(presentation)은 관객 없이 간단한 스토리라인에 의해 즉흥극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비평도 배우로 참여한 학습자들이 상호 비평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학습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구안하고, 그것을 연행하였으므로 비평도 그 구안의 극화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지지만, 원 텍스트와 다양한 담론들을 잘 극화하였는지도 비평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비평이 허구적 공간에서 빠져 나와 극의 언어가 아닌, 극에 대한 메타언어(meta-language)로 구체화된다면, 핫 씨팅은 여전히 허구적 인식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강종렬씨 역을 맡은 학습자는 그의 입장에서 그 외 인물들의 질의에 답한다. 강종렬씨역은 이미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내면을 표현해 보았으므로, 부차적 인물들인 법정이나 매스컴 관계자들, 시민들의 내면을 알기 위한 핫 씨팅이 더 효과적이다.

역할 바꾸기는 학습자들이 인물과 텍스트를 평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매체가 된다. 강종렬씨역의 학습자는 법정 관계자나

사제의 역할을 해 봄으로써 사회의 입장을 알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된다. 그럼으로써 초점화에 따른 텍스트의 담론 생산 과정을 體化하게 된다.

핫 씨팅은 관객 행위가 있는 공연 후의 단계에서도 효과적이다. 관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핫 씨팅의 場은 역동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들로 구성된다. 각 인물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도 다양하므로 관객들 사이의 다중적인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어 텍스트에 대한 자율적 담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다.

역할 바꾸기와 핫 씨팅에서는 본격적 극에서 지배적 기호로 작용하던 회극적 분위기가 유지될 수도 있고, 그 분위기가 전복되어 오히려 비극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위기의 전복은 원텍스트를 다시 해체시키면서 의미의 재구성을 이끌어냄으로써 새로운 담론을 구성한다. 이러한 유스 씨어터 과정 중에 발생하는 전복과 해체, 산종과 보충, 의미의 차연 등을 통해 학습자들은 텍스트에 내재된 풍부한 의미의 잠재역을 체화하고, 여러 타자들의 담론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동시에 비판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관객이 있는 공연을 위해 필요한 것은 스크립이다. 유스 씨어터는 공연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스크립 제작도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지만, 관객을 참여시키는 공연에서는 스크립과 더 많은 리허설이 필요하다. 스크립은 다중적인 목소리를 반영한 담론과 즉흥극을 충분히 구체화시킨 총체적인 텍스트가 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6. 원텍스트로의 피드백

원텍스트로의 피드백은 생략할 수 없는 과정이다. 각 담론의 생산이 타당하였는지 다시 한 번 원텍스트를 점검해야 한다. 원텍스트로부터 담론으로의 과정에서 주체로서의 학습자의 이데올로기 개입의 양상을 검토하고, 학습자 스스로 담론 場을 유연성 있게 재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유연성이야말로 텍스트의 다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밀반침하고, 결국 민주적인 담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필요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강종렬씨 사전 텍스트는 다양한 담론을 생산해 내었다. 그 다양한 담론들이 우리 사회 담론의 장에서도 각각 타자의 목소리로 인정받고, 그것이 다른 텍스

트 읽기에도 정당하게 전이됨으로써 텍스트로 가득 찬 현실 속에서 교육도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텍스트와 담론으로 복잡하게 얽힌 현실 속에서 교사에서 학습자로의 일방향적인 지배 담론의 선조적 전달은 교육적으로 의의가 상실되었다.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언표와 코드화 방식을 고찰하고, 이로써 텍스트를 스스로 재구성하여 담론화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육의 장은 주체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민주적 담론의 장이어야 한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중적인 담론 생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매체가 변용적 네트워크로서의 유스 씨어터이다. 이 유스 씨어터는 ‘텍스트 선택→직관적 메타텍스트 생산→상호 메타텍스트의 다중적 대화→하이퍼미디어를 통한 정보검색과 텍스트 연구→구안(스토리 텔링, 스토리 라인 구성, 스타일 설정, 장면 구성, 오프시스와 멜로포이아 설정→즉흥극→장면과 극에 대한 비평→역할 바꾸기, 핫 씨팅 등→스크립 제작→원텍스트로의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통해 다층적인 목소리들이 억압받지 않고 모두 검토해 볼 수 있는 역동적인 담론의 장을 마련해 준다. 이 과정은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원텍스트를 간과한 연행 중심의 연기 교육으로 나가는 것도 막아 준다.

‘아버지의 아들 손가락 절단 사건’이라는 텍스트도 초점화에 따라 다양한 담론을 생산해 낸다. 사건 텍스트에 대해 생산된 메타텍스트를 상호 대화적 공간에서 구성하고, 하이퍼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탈담론을 재구성한 후, 스토리 텔링을 통해 다선적인 스토리 라인을 구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면을 구성하고 오프시스와 멜로포이아를 설정한 후 본격적인 즉흥극을 연행하고, 공연 후 단계로서 역할 바꾸기와 핫 씨팅 등을 통해 텍스트의 잠재적 의미역을 더욱 풍부하게 도출해 내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원텍스트로 피드백 함으로써 탈담론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손가락 절단 사건 텍스트는 ‘윤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 ‘정신 분석적 관점’, ‘대중 심리적 관점’과 ‘아들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탈담론으로 구성되었고

이들 담론들을 모두 수용하는 공간(장면)을 '빈 공간'으로 설정하여 역동성과 신축성을 부여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법정 공간(재판과 재판 후 시민들의 인터뷰)→심리 분석 공간(게슈탈트 상담 공간과 극중극 공간)→법정 공간→회생제의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공간을 이루는 관점의 일원화를 지양하기 위해 '웃음'이라는 매체를 도입하여 극 전체를 쾌락 원리(pleasure principle)를 통해 의미를 해체시키고, 그로테스크한 희극인 절대적 희극(absolute comedy)이 동반하는 시니시즘과 키니시즘을 통해 억압을 해소하며, 풍자적, 축제적, 해방적 기능을 갖는 놀이의 성격을 띤 카니발(carnival)로 구성하였다.

즉흥극이 끝난 이후에는 '역할 바꾸기, 핫 씨팅'을 통해 즉흥극을 다시 해체하여 다중성을 재확보하고, 학습자들이 원텍스트로 피드백하여 탈담론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시하였다.

요컨대, 교육은 텍스트 연구라는 관점에서, 텍스트를 통해 다중적 탈담론을 구성할 수 있는 담론의 민주적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타자들의 목소리가 억압받지 않고 지배담론이 제국주의를 형성하지 않는, 발전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구체적 방법으로 유스 씨어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I」
 권택영, 「영화와 소설 속의 욕망 이론」, 민음사, 1995.
 김균형, 「빈 공간의 탐구」, 「한국 연극학」 제9호, 한국연극학회, 1997.
 민병욱, 「연극읽기」(제2판), 삼영사, 1998.
 박은희, 「학교 연극 교육, 개방과 융화의 장으로」, 교육월보, 1994.4.
 이광래, 「미셀 푸코-광기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까지」, 민음사, 1996.
 이정우, 「가로지르기」, 민음사, 1997.
 이채연, 「하이퍼미디어를 이용한 국어과 수업전략」, 어문학 제 60집, 1997.2.
 최운정, 「연극 놀이의 교육적 효용성」,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8.

- Easthope, Antony, 임상훈 옮김,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현대미학사, 1996.
- Lyotard, J.F., 이현복 옮김, 「포스트 모던적 조건」, 서광사, 1992.
- Scholes, Robert, 김상옥 옮김, 「문학이론과 문학교육」, 夏雨, 1995.
- 류보선, 「시니시즘의 이율배반」. “<http://munhak.com/md/98sum/10.htm>”
- 성은애, 「문학에서의 웃음과 시니시즘」. “<http://munhak.com/md/98sum/8.htm>”
- 윤혜순, 「웃음, 주체, 시니시즘-보들레르의 웃음의 본질」을 중심으로.
“<http://munhak.com/md/98sum/9.htm>”
- 조용재, 「오늘 작품에 나타난 표현주의 기법」.
“<http://members.iworld.net/drama21C/book/paper/lhsburied.htm>”
- 최종옥, 「하버마스와 푸코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http://www.munhwa.co.kr/geacsuk/19980801/805.html>”
- 모의재판. <http://my.netian.com/~crimlaw/27회사진.html>
- 모의재판. <http://user.chollian.net/~shandya/trial.htm>.
- Aichele, George., *Reading beyond Meaning*.
“<http://Jefferson.village.virginia.edu/prmc/text-only/Issue.../aichele.59>”
- Choi, won. *A Note for Derrida*.
“<http://www.erois.com/spinoc/eaenida.html>.”
- Kierans, Kenneth, *Beyond Deconstruction*.
“<http://www.mun.ca/animus/199/voiz/kierans1.htm>”
- Martin., Geraldine, *The Use of Puppetry to Increase Self-worth through the Windows of Poetry*.
“<http://www.cis.yale.edu/ynhti/curriculum/guides/1991/4/91.04.08.x.html>”
- Morningstar, Chip, *How to Deconstruct Almost Anything*
“<http://www.communities.com/paper/deconstr.html>”
- Robbin, Bruce, *Creative Dramatics in the Language Arts Classroom*
“http://www.ed.gov/databases/ERIC_Digests/ed297402.html”
- The Poetry Page. “<http://www.sympatio.ca/ray.saitz/poetry.htm#kyle>”

하이퍼미디어 수업을 위한 자료(활용된 순서대로)

- 한겨레 신문 1998. 9. 12. "<http://www.hani.co.kr/han/data/L980912.html>"
- 한홍식 교수 홈페이지. "<http://hywon.pusan.ac.kr:8080/~hans>"
 "http://hywon.pusan.a.../read.cg!b=31c&c=r_p&n=892435861=1&s"
- 김희재 교수 사회학 개론. "<http://nature.ottas.co.kr/sointr1.html>"
 "<http://nature.ottas.co.kr/sointro/whatso.htm>"
 "<http://nature.ottas.co.kr/sointro/개념찾기.htm>"
 "<http://nature.ottas.co.kr/sointro/deviant.html>"
- 이한구, 「돈 먹는 정치, 경제 국치를 불렀다」,
 중앙일보·한국개정학회 공동 기획 10대 한국병.
 "http://www.joonang.co.kr/online_news/series/10_disease/.../0109_1.htm"
- 계슈탈트 상담 기법. "http://counsel.or.kr/book_10-2.htm"
- 라캉의 욕망 이론. "<http://isir.kaist.ac.kr/~potin/cinema/article/ECRI/ECRI-1.htm>"
 "<http://social.snu.ac.kr/study/5/차원/2/4.htm>"
- 모션 픽쳐. "<http://user.chollian.net/~ehfl/list2.htm>"
- 보드리야르 관련 비평. "<http://campus.nownuri.net/lecture/phil6.html>"
- 김 현 문학전집 10 『폭력의 구조/시칠리아의 암소』, 문학과학지성사, 1992. 요약.
 "http://my.netian.com/~PHILINFO/doc/report_data/kimhyun.htm"
- 김진식, 「르네 지라르 모방 욕망과 소설 이론」, 라벨름 여름호, 1998.
 "file:///W- MDIR-W- 사상특집_김진식.htm"
- 박정오, 「르네 지라르 문화에 숨겨진 폭력」, 라벨름 여름호, 1998.
 "file:///W- MDIR-W- 사상특집_박정오.htm"
- 「푸코의 하이데거 비판」. "<http://khlab.kyunghee.ac.kr/~kcon12/foucault/cr1.html>"
 "<http://home.taegu.net/~decon/lock/down/decon14.html>"
- 서동욱, 「들뢰즈의 법 개념」.
 "<http://www.propose.co.kr/moonsa/40/서동욱.htm>"